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가정 제목 :가정의 가치 성경:골로새서 3장 18-21절

18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니라

19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18-21)

가정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닐지 몰라도 소중한 필수적인 가치인 것은 틀림이 없다.

오늘날에는 가정의 형태나 기능, 윤리, 역할, 구성원 등이 너무 다양하고,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다.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연들이 있고,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요즘 인기있는 TV 프로그램으로 ‘안녕하세요’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 각양 각색의 고민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가정문제로 인한 고민들인데 문제의 핵심인물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 보다는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점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정도를 가늠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고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고민에 공감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협상이 가능한지를 타진한다. 그래서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너무 간단한 몇마디 말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만다.

마치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듯이.

또 가정이라는 주제로 찾는다면 교훈이 몇 가지 없다. 물론 가정과

연결되어있지 않는 주제도 몇 가지 없다.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

오히려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에는 성경말씀처럼 간단한 말씀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필수적이고 기초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정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초적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정이 복잡한 것만 크게 여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기초적인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

물론 그래서 딱히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없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이다.

성경말씀을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탐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다.

말씀을 지킬것이나, 말것이나를 결정하느라고 이리 저리 생각을 접었다 펼쳤다 하지 말라.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떻든 순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그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이란 그 가치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일례를 들어보자.

18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니라

아내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남존여비?) 이 말씀의 가치는?

-창조적 원리가 숨어있다. 순서의 문제.(질서) (남자가 먼저. 먼저가 더 우월은 아님. 그러나 후자를 돌보게 됨.)

(여성은 최종적 피조물. 완성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보다 신체적 근력은 약하게 하심. 위로자, 격려자, 보호자, 상담자. 그러나 상상력은 풍부한데 이 상상력이 허무한 상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가 필요하다.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상상력의 부작용은 해소된다.)

-사랑의 원리.(질서가 주어진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복종이 가장 거룩한 표현이 된다. 복종은 서로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사한다.)

(울타리 안에 힘센 개와, 힘이 없는 개를 넣어 놓고 순서를 정해주자 모든 문제가 해결됨.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됨.)

-주권의 원리.(경제 주권이나, 우선권의 원리,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아졌다. 여성의 경제주권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

그런데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 안에서;더더구나 주안에서 마땅하다는 뜻.

-그러나 다양하기 때문에 복종이 세분화 되거나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

-남편에게 유고가 있거나, 남편 스스로가 남편이기를 포기하거나, 남편이 악한 것을 강요하거나, 남편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편의 주권은 유보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아내는 얼마든지 남편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복종을 통해서 가정은 평안하게 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는 남편에게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서로의 인격적 손상이나 자존심문제가 갈등요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서로 협력하면서 난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가장 큰 고통은 자기의 고집이나 욕심, 자기 생각의 강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실망감 등이 갈등의 요인이 될 경우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성숙의 문제이다.

-인격장애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장애를 견디어 내는 것도 일종의 건강함이다.

-대부분의 부부문제는 사실은 개인의 인격적 건강함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19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은 복종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우며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남자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여자는 사랑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여자가 화를 내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이고 화를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이 그녀에게 유익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어쨌든 그것은 그녀의 문제고, 남편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화가 풀리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면서 남편 때문에 즐거워하도록 하라.

-곁에 있어 주어라. 말동무가 되어 주어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 폭력행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빼앗아 간다든지, 변명만 늘어놓는다든지, 장담만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부러먹는다든지, 약점을 잡고 집요하게 교정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아내를 괴롭히는 짓이다. 무능해서 남편을 버리는 아내는 거의 없다. 괴롭혀서 헤어질려고 한다.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한없이 사랑하고 희생하지만, 순종만은 가르치라. 순종은 맘이 좋은 아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만큼은 가르침으로 배우는 것이다.

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라고 무시하고 인격적 모독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4가지만 잘 지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된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것이다.

-가족이란 나의 희생의 첫 번째 대상자이며, 무한책임의 대상자이다.

-둘만 있어도 가족이며,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한다.

<찬양예배>

주제:만족 제목:이 세상의 변수는 사람이다 말씀:전도서 11장

- 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 4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 5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뱀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 7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10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11:1-10)

- 하나님이 변수는 아니다.
- 삼라만상이 변수는 아니다. 말세가 되기 전까지는.
- 삼라만상이 변수가 되는 이유는 인간이 변수이기 때문이다.
- 이 세상의 변수는 사람이다.
-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사람이다.
- 자기가 망하는 이유도, 가정이 망하는 이유도, 나라가 망하는 이유

도 사람이다. 천재지변이 아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다.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고, 꿈을 향해 전진하게 지어졌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변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이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든지 귀신이든지 내 생각을 움아맸기 때문이다.